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8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13일 (음력 2월 28일) 금요일

정남진권 푸른숲 조성사업 시행과정서

장흥군, 나무 납품업자와 '결탁 의혹' 제기돼

장흥군이 법규를 임의로 해석해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일감을 몰아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장흥군은 2015년부터 3년간 정남진권 푸른숲 조성사업 시행과정에서 39여여 원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무가격을 시가보다 부풀려 설계를 해서 납품업자와의 결탁의혹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장흥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15년부터 3년간 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산림조합에 77건 131억88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된 사업은 고작 15건 8억3천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

가격 시가보다 부풀려 설계해 차익 향방 의구심 증폭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대거 몰아줘 특혜 의혹도 난무

이다.

이같은 사정을 반영하듯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30일 지방자치 단체와 산림조합간의 불법, 편법특혜 수의계약을 개선할 지침으로 장흥군 등의 위법행위를 모델삼아 개선안을 발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A도 씨는 "나무를 납품하는 업자 B도 씨는 군수 최측근으

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모종의 컨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군 계약담당자는 일괄적으로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 8호 사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며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와는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흥산림조합은 본보가 나무 납품업자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장산 내역서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흥=김홍필 기자



Photo漫評

내가 사는 법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비문대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기뻐했던 개혁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특정 정당에 매이지 않고 당파적인 정견의 울타리도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원연대에 대해서는 '이당의 분열과 지리멸렬 상태가 계속되면 집권 세력은 또 오만에 빠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려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이당의 견제 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원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고두고 이야기 아니다"며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가적인 여야의 정립 구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금호타이어 2월분 밀린 임금·설 상여금 지급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이 그동안 밀린 임금과 상여금 일부를 지급 받아 생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일반직과 생산직 직원들의 2월분 밀린 임금이 지급됐다. 또 생산직들은 밀린 설 상여금도 함께 지급받았다.

이날 국내공장 일반직 임직원과 생산직 등 총 5000여명에게 지급된 임금과 상여금 합계액은 290여억원 수준이다.

금호타이어는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2월분 임금을 올 1월8일에 당좌대일(마이너스 통장 성격)을 통해 빚을 내서 지급한 이후 그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약정서(MOU)'를 체결한 날 밀린 1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오늘 추가로

밀린 2월분 임금과 설 상여금을 지급했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밀린 3개월분 임금 중 2달분을 이날 지급함으로써 3~4월분 임금과 생산직들에게 3월분 상여금만 지급하면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연차수당, 일부 수당은 노사가 협의해 늦어도 다음달 내로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영정상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조만간 노사, 채권단(산업은행), 중국 더블스터가 참여하는 비라워워회를 구성하고 회사 발전 방안과 노사 합의사항 이행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래위원회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방식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사측의 자사주 출원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우 기자



'일터 사망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개최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권역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키로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 광주시(행정부시장 정종제)와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남규)는 12일 광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일터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련하여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사·민·정이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및 산재예방기

관·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광주시민은 사망사고가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망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 ▲노동자는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사업주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기관·단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솔선수범 등이다.

최남규 기자

참진드기 개체수 증가...SFTS 바이러스 감염 주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하는 참진드기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야산과 등산로 주변 숲속 등을 대상으로 야생 참진드기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16마리였던 것이 2월 27마리, 3월 272마리로 급증했다.

다행히 광주지역에서 채집된 참진드기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유발 바이

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4월 이후 SFTS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상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뒤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이 동반되며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한다. 중증의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뉴시스

녹차수도보성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제44회 보성다향대축제

2018. 5. 18.(금) ~ 5. 22.(화) /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보성차밭 일원)

주최·주관 보성차생산자조합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지역진흥재단

제13회 보성녹차 마라톤대회

2018. 4. 29.(일) 9시 출발
보성공설운동장

풀, 풀4인조(단체전), 하프, 10km, 5km

www.bsmarathon.co.kr 접수문의 : 061)375-1288 (마라톤세상) 061)850-5889 (보성군체육회)

주최·주관 : 보성군체육회 · 보성군마라톤연합회
후원 : 보성군 · 보성군의회 · 전라남도